

사회복지시설 탐방 ⑨ 정혜원 원장 최혜원

“장애인도 우리 가족입니다”

정혜원은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며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

지난 1988년부터 포천이 소흘읍 이곡리에 자리잡고 있는 정혜원(원장 최혜원)은 보건부 신고시설로 '고요한 은혜의 동산'이란 뜻을 지닌 사회복지시설이다.

정혜원은 최혜원 원장과 남편인 김택오 목사, 김정용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9명 정원에 1~3급까지의 중증장애 및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9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32년 짧게는 10여년간 최 원장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이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대학 졸업 후 1971년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지양학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사발집”이라며 “이후 해인 학교에서 한국의 복지시설 현실

의 안타까움에 아쉬운 나머지 정혜원에 1979년부터 4명의 아이들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일본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운 가장 큰 항목은 장애인들에게는 먹고, 싸고,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최 원장은 “이런 문제의 해결과 가족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포천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고, 1988년 주민들의 협조 속에 포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이러 “정착 당시 마을의 이장이었던 이운래 전 이장에게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설의 한달 운영비는 평균 400만원 선으로, 운영비는 대부분 입소한 장애인의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곳이 다수 있어 이런 문제의 해결 역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정혜원은 신고시설로 전환을 위해 서류를 제출, 이달 말까지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신고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실상 정혜원의

경우 신고시설로 전환이 의미는 없다”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법적 테두리에 속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단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원에서는 포천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일본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원장이 사회복지시설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일본의 지양학원과의 교류이다.

“매년 1회씩 일본에서 정혜원으로 방문을 하거나, 정혜원 가족 중 1.2명을 지양학원으로 보내 교류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원생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현실에 대한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사실상 정혜원의



정혜원은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치며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원안 사진은 최혜원 원장)

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혜원에는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이사와와 포사(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및 개인이·이용봉사자 등이 찾아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원장은 “자원봉사는 마음으로 풀어주는 것이다”며 “정혜원은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혜원은 앞으로 5년 계획으로 현재의 시설을 신축을 목표로 시설개선 및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시의 인건비 등을 보조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을 더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후원: 272701-04-007812 (예금주:최혜원) 문의: 031-544-3778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성공의 법칙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즐거보는 TV프로 중에 하나가 '특별 아빠의 도전'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외되어 가는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프로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평범한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미션을 받고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달성해 내는 것을 볼 때 면 감동 외에도 강한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100종류의 강아지 이름을 맞추는 다거나 먼 거리에서 카드를 던져 쫓아볼 수 있거나 하는 평소에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과제도 막상 이 프로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해 내고야 만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최단 시간에 전문가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다가 그것이 바로 사랑과 함께 배수의 진을 통해서 오게 될 줄 알 수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의 소망을 꼭 이루어 주고 싶다는 아빠의 사랑, 그 사랑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의 요체였다. 그

리고 아빠의 사랑과 함께 가족들의 아빠에 대한 사랑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것이 이 프로는 말해 주고 있다.

사랑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힘을 주며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이유를 찾는다면 배수의 진을 들 수 있다. 배수의 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방법이다.

배수의 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최대한의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태어나게 계를러서는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 성공을 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배수의 진을 쳐라.

필자연락처 031-542-0032



주재용씨가 쌀1가마를 전달하고 임마누엘의 집 가족들과 함께 했다. (앞줄 우 4번째 주재용씨, 앞줄 우 5번째 이석우 목사)

주재용씨, 쌀로 실천한 이웃사랑

본지에 보도된 임마누엘의 집 도와

주재용씨가 근내면 '임마누엘의 집(원장 이석우 목사)' 가족들에게 쌀 1가마(80kg)를 기증해 따뜻한 이웃애를 실천했다.

본지 '포천사람들'에 기획 연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탐방 기사를 즐겨 읽는다는 주재용씨는 “지난 5월 31일자 기사를 보던 중 임마누엘의 집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임마누엘의 집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이같은 사실을 현재 출석하고 있는 고양시 능곡화평교회(목사 김광림) 구제위원회에 알리고 쌀을 구매해 임마누엘의 집에 기증기로 결정했다는 것. 능곡화평교회는 구제위원회를

두고 사회의 불우시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공교롭게 알려지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시설에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마누엘의 집 이석우 목사는 “육심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웃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감자를 캐기위해 지난 10일 왕성호 부녀회장 자택 뒷밭에 함께 한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신북면협의회와 부녀회 회원들이 감자를 캐어 보이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감자 팔아 이웃사랑 실천”

새마을운동 신북면협의회, 600여명 감자 수확

지난 10일 왕성호 부녀회장 자택 뒷밭에 모인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신북면협의회(협의회장 이관희·부녀회장 왕성호, 이하 새마을신북면협의회) 회원들의 손길이 감자를 캐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봄 600여명의 왕성호 부녀회장 자택의 뒷밭에 씨감자를 심은 새마을신북면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 10명과 부녀회장 20여명이 함께 모여 감자를 캐었다.

이날 수확한 감자는 20kg 200여 상자로 새마을신북면협의회는 이 감자를 팔아 이웃사랑을 실천할

을 구입 어려운 이웃을 돕을 예정이다.

왕성호 부녀회장은 “회원들의 도움으로 감자를 무사히 캐 수 있어 감사하다”며 “감자를 캔 밭에 배추를 심어 가을에 불우시설 및 독거노인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운동 신북면협의회원과 부녀회원들은 매년 매주 만 들고, 감자를 심은 수익금으로 쌀 등 생필품을 구입해 불우이웃을 돕고 있으며 가을엔 감장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시민의 왕성한 기상과 번영’ 形象化

송우택지개발 공동사업기념 상징탑 제막식

포천시는 지난 15일 소흘읍 송우리 솔모루 공원에서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 참여한 가운데 포천송우지구 택지개발공동사업기념 상징탑 제막식을 가졌다.

이 상징탑은 전국 최초로 포천시와 주택공사가 협약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비상(飛上)’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포천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화하며 미래에 힘차게 비상하는 포천시의 시민의 왕성한 기상과 번영을 형상화하고 있다.

면적 19만3천평에 6천45세대 1만 9천346명을 계획인구로 1천893억 원이 투자되는 ‘포천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7년 9월 지구지정이 고시됐으며 2001년 9월 기공식 후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돼 현재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지난 15일 소흘읍 송우리 솔모루 공원에서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 공무원 등이 포천송우지구 택지개발공동사업기념 상징탑 제막식에 이어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50%가 완료

다. 올해 12월에는 기반시설공사가 끝나고, 내년 6월까지의 공동

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자율방범대 제13대 조만형 대장 就任

지역 치안 선도 앞장서

포천경찰서 영북자율방범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영북농협 3층 예식장에서 영북자율방범대장 이·취임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는 제12대 한영환(44·운천리) 전임대장의 이임식과 제13대 조만형(41·아미리) 신임대장의 취임식으로 마련되었고, 영북방범대원 80여명과 황용선 부시장 등 내빈 1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한영환 전대장의 이임사와 조만형 신임대장의 취임사에 이어 방범대기전달, 방범대장 계급장 수여, 표창장 및 감사장 전달, 부시장 축사 및 내빈 격려사로

진행됐다. 영북자율방범대 제13대 임원은 ▶부대장 정영수, 윤정석 ▶총무 박명희 ▶감사 연양홍, 김상우이다.

황용선 포천시부시장은 “주민들 내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마음과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범 죄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방범대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조만형 대장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만형 신임 대장은 “지역

치안을 앞장서 선도한다는 마음으로 방범활동을 이끌겠다”며 “대원 모두 화합 단결해 영북면의 치안태세 확립을 이룩하자”고 다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자율방범대 제13대 조만형 대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역치안 선도 및 봉사를 다짐했다.

제2회 선단동민 걷기대회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

선단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 8월 15일 참가신청 마감

포천시 선단동사무소가 오는 8월 27일 대진대학교 운동장과 진입로에서 “제2회 선단동민 걷기대회 및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을 개최한다.

“함께 하는 선단, 아름다운 선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스키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모기자전거, 마술쇼 등의 시범공연과 미니축구, 프리스타일 농구, 걸기, 인라인스케이트타기, 노래 및 댄스 경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 선단초등학교 풍물부와 포천 종합고등학교 관악부, 포천시립민

속예술단 초청공연이 식전행사로, 하석주, 노상래 등 전 국가대표육구선수 사인회와 경품추첨 등이 부대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포천시 초중고생 및 선단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이번 행사는 선단동사무소가 주최하고 선단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회가 주관하며 선단동체육회와 선단동통장협의회가 후원한다. 문의는 포천시 선단동사무소(031-541-5657)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선단동사무소가 오는 8월 27일 대진대학교 운동장과 진입로에서 “제2회 선단동민 걷기대회 및 제1회 청소년 X-Game 대제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1회 선단동민 걷기대회 모습.

벨로루시공화국 모길로프대표단 포천시 방문

양국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벨로루시공화국 모길로프대표단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포천시를 방문했다. 특히 대표단에는 ‘바투라 보리스 바시리에비치’ 모길로프 주지사와 ‘쇼리코프 빅토르 이바노비치’ 모길로프 시장 등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월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방문단이 벨로루시를 방문해 모길로프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 18일 모길로프 대표단은 포천시청을 방문해 박윤국 시장과 양 지역 간 경제협력 및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또 과학, 기술, 스포츠 교류 가능성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바투라 보리스 바시리에비치 모길로프 주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대표단은 이어 포천시의회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섬유, 기계, 가구, 농산물가공 관련 기업체를 시찰했다.

또 지난 19일 포천시 방문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한국수입업협회에서 모길로프주 투자 및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고, 산업지원부

장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접견하고 20일 출국한다. 한편 동유럽에 위치한 벨로루시공화국은 1991년 당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인구는 약 1천33만명, 1인당 GDP는 6천달러이고 수도는 민스크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